

동물운동 20년 동물자유연대 20년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삶 47호



동물자유연대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해요!

동물들과 함께 걸어온 20년
여기까지 인라 힘들었을
동물자유연대의 발자국에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누동바

©Noodbar3Bo

동물자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호
2020.12 No.47

CONTENTS

- | | | | |
|----|------------------------------------------------|----|------------------------------|
| 03 | 창립 20주년 기념사
동물자유연대가 2020년에
만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 62 | 숫자로 보는 동물자유연대 |
| | 동물운동 20년, 함께 나누었던 삶 | 68 | 우리가 하는 일 |
| 06 | 20년 발자취, 주요 활동 20선 | | 새로운 20년, 함께 나눌 삶 |
| 48 | 사진으로 보는 순간 | 74 | 변화를 위한 우리의 약속 |
| | 오늘, 동물자유연대 | 78 | 20주년 좌담회
동물권, 연대의 폭을 넓힐 때 |
| 60 |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86 | 동물자유연대, ○○○을 부탁해! |
| | | 90 | 공존을 위한 시민의 메시지 |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 2020. 동물자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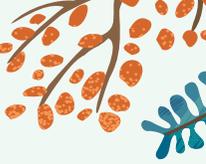
발행처 (사)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21년 2월 17일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기획 동물자유연대

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정유희 표지 그림 휘리
편집 신영배, 박주호 디자인 신제현, 김라연 교정 조선경 인쇄 순환광고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 종이 및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동물보호지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www.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가 2020년에 만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동물자유연대가 만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나' 싶은 생각과 더불어 그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땀 동료들과, 응원
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동물들이 생각합니다.

"습관은 동물해방운동이 직면하는 최후의 장벽이다. 우리는 사고의 습관으로 인해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 방지 노력을 감정적인
것으로, 또는 '오직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된다."

20년 전 동물운동에 뛰어들며 제일 먼저 읽었던, 당시로서는 동물운동 입문서와 같았던 피터 싱어의 저서 <동물 해방>의 서문을
보며 책을 여러 장 넘기기도 전에 무릎을 탁 내리치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로구나!' 무의식 속에서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
편익을 누려온 나를 포함, 사람들에게 대한 성찰이 일어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얼마나 험준운 일인지 가능할 수 있게 된
그리하여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사명을 공고히 다지게 되는 이유를 20년 전, 그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20년은, 인류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 없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동물 이용과 그 과정에서 동물에
게 가해지는 잔혹 행위, 그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해져 있는 것, 당연함으로 고착된 그 사고의 습관을 깨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0cm 간격의 벽을 앞에 두고 동물의 말을 전하는 암담함으로 시작했던 20년 전 우리의 걸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길목길목
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주었던 많은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가 점차 더욱 잔혹한
형태로 나타나고, 동물을 이용하는 산업은 점점 거대화되는 등, 세상의 양상은 우리의 숨 가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한탄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다 진전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 멀리에만 존재하는 것 같았던 국회와 손을 맞잡고 동물보호법을 진전시켜왔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법부로부터 동물학대
징역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캣맘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식의 확산은 우리 주변 동물에 대한 직접 돌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물운동가로서 두근두근 저 개인에게 남은 영광된 순간은, 부산 구포와 성남의 개 도
살장이 종식된 것과 아쿠아리움에 감금된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힘껏 물을 치고 나가는 순간을 만든 시간에 있습니다. 모두가 함
께 만들어낸 순간들입니다.

스무 살, 그동안 걸어온 경험을 토대로 열정과 포부가 넘치는 무한 가능성을 담은 나이입니다. 그동안 오는 길마다 많은 분이 손
맞잡아왔듯, 남은 다른 손에 또 다른 손을 이끌어 잡고 온정을 기다리고 있을 길목길목의 동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섭시다.



“동물자유연대 20년, 함께 나누었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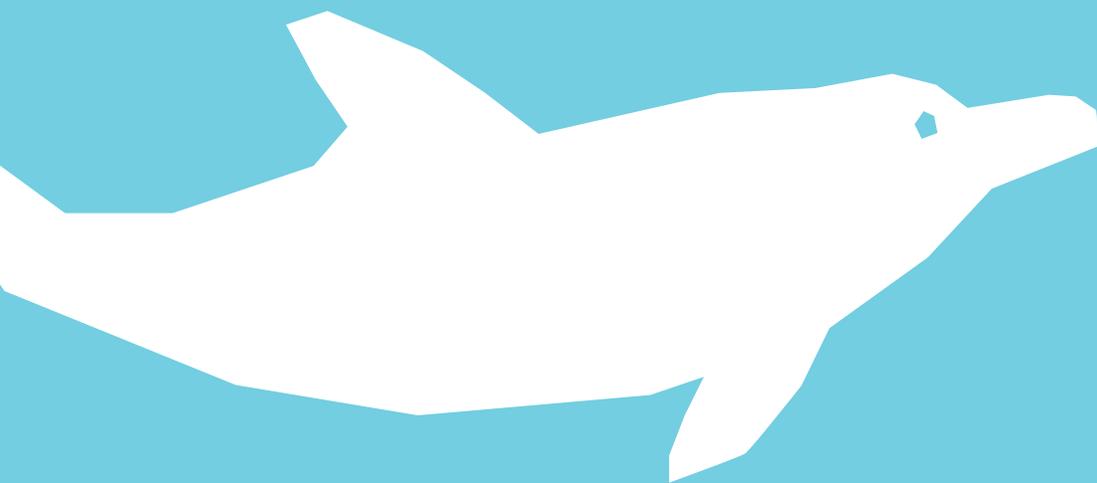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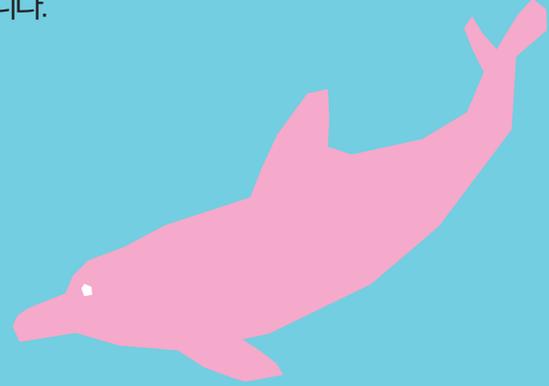
01

스무 살 청년이 되기까지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동물운동 역사에서 많은 첫 경험을 했으며 한편에서는 변화의 성과들을 일구어냈습니다. 회원과 시민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동물들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감하고 공감하며 삶을 나누었으며, 때로는 함께 쓰디쓴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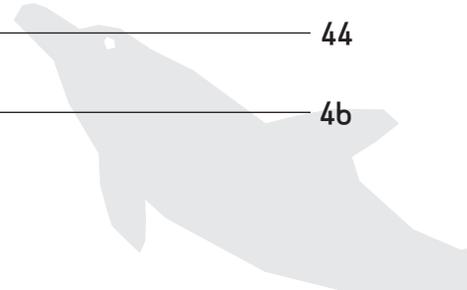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동물운동 환경에서 온몸을 던져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온 지난 20년 동물자유연대의 시간을 공유합니다.

20년 발자취, 주요 활동 20선

동물운동 20년, 동물자유연대 20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0년부터 스무 개의 이슈와 순간을 공유합니다.



1. 동물 그리고 입양(2000년) #구조를_넘어_입양으로	8
2. 생쥐 죽이는 금연교육 금지(2000년) #생명경시_교육현장	10
3. 학살 대신 TNR(2004년) #길고양이_개체수조절	12
4. 애완 아니죠, 반려 맞습니다(2005년) #가족으로서의_동물_인지 #반려생활	14
5. 농장동물 실태조사 시작(2007년) #농장동물도_생명입니다	16
6. 계간 <함께나누는삶> 창간(2008년) #동물보호계간지 #13년간발행	18
7. 잠실 동물학대 사건(2010년) #강아지8마리_학대 #때리고_죽여도_500만원내면_그만?	20
8. 연평도 포격 동물 구호 활동(2010년) #국가적_재난상황 #위기동물구호	22
9. 시대착오적 세빛섬 모피쇼(2011년) #No_Fur_No_Fendi	24
10. 하프물범 캠페인 진행으로 윤리적 소비 구축(2011년) #소비전환	26
11.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2012년) #윤리적소비	28
12. 최초의 동물복지센터, 온센터 개관(2013년) #생명에_불을켜다	30
13.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2013년) #남방큰돌고래 #소돌고래_반대	32
14. 캣맘·캣대디 풀뿌리단체 지원(2016년) #지역단체 #캣맘협의체	34
15. 강아지 공장 실태 폭로(2016년) #펫숍_뒤_진실	36
16. 법률지원센터 출범(2017년) #동물학대대응 #법률전문가	38
17. 케이지프리 Cage-Free(2018년) #기업의_윤리적소비	40
18. 사자 가족의 생추어리 이주(2018년) #서울대공원 #사자구출	42
19. 구포 개시장 폐쇄 쾌거(2019년) #개식용금지	44
20. 사육곰에게 자유를(2020년) #응답채취_반대	46





1

● 동물 그리고 입양, 2000년

#구조를_넘어_입양으로 #동물도_입양 #가족이니까_입양 #사지마세요

‘동물을 입양한다’는 말이 오늘날에는 일상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아닌 동물한테 입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년간 꾸준히 ‘입양’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는 가운데 구조 동물 입양문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우리 사회에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을 정착시켰습니다. 이제 반려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윤정임 /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동물자유연대는 온센터를 통해 연평균 180마리 정도의 동물들에게 평생 가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20년간의 노력에 입양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입양문화 확산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물에게 입양은 말 그대로 새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부디 사지 말고 입양해주세요.”





2

● 생쥐 죽이는 금연교육 금지, 2000년

#생쥐_죽이는_금연교육 #새_니코틴_투여_반대 #생명경시_교육현장 #보건복지부

1990년대 우리나라 흡연율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당시 고3 청소년의 흡연율이 40%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 정부 주도로 활발한 금연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금연교육 현장은 생명경시 그 자체였습니다. 흡연으로 생쥐, 작은 새 등에게 니코틴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소모되는 교육 소재로서 동물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생명을 유린하는 교육 방법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근절하는 대체 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배포되는 금연교육 지침에 스모키 슈(흡연실험 인형)를 활용하는 등 대체 실험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보내왔습니다. 동물실험은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 변화가 더딤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축소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대체실험 개발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학살 대신 TNR, 2004년

#길고양이_개체수조절 #학살_대신_TNR #중성화수술_후_방사 #도둑고양이_아닌_동네고양이

길고양이가 '들고양이', '도둑고양이라고 불리던 2000년대 초는 요즘과 달리 길고양이 중성화(TNR)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시 동대문구는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마리당 1만 원의 비용을 내걸며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역 동물로서 길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획 후 안락사' 방침이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서 길고양이 TNR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동대문구 길고양이 학살계획의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과거의 들고양이나 도둑고양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이제는 동네고양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듯이 지난 20년간 동네고양이는 '없애고 싶은 골칫거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네고양이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동네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TNR 제도를 도입해 실행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을 시작으로 2002년 40마리, 2003년 411마리, 2004년 478마리, 2005년 290마리의 길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TNR 사업에 대해 '고양이가 눈에 띄게 줄었고, 관련 민원도 사라졌다'라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증명했고,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 TNR 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4

● 애완 아니쇼, 반려 맞습니다, 2005년

#애완_아니쇼_반려_맞습니다 #가족으로서의_동물_인지 #반려생활 #반려동물복지국제컨퍼런스

동물은 인간 기호 충족의 수단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이전까지는 이름조차 '애완동물'로 불리던 존재였습니다. '이제 반려동물로 함께하자', 동물자유연대는 2005년 국내 최초 동물복지 컨퍼런스를 열고 외쳤습니다. 당시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동물복지 정책을 살펴봤고,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동물의 사회적 위상에 점차 변화가 생겼고, 언론에서도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반려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복지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입양, 피학대 동물 구조 및 보호, 관련 법 제개정 등,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선도했다는 점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한 획을 그은 역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영인 / 입양가족 / 동물자유연대 온센터

평택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네치는 2019년 8월 송씨네 집의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쁜 탓에 서로에게 무더진 가족의 삶 속, 네치는 따뜻한 온기를 선물했습니다. 입양은 가족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요, 우리와 체운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는 동물들은 살아 있는 인형이 아닌 어엿한 '가족'입니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함께해요.



5

● 농장동물 실태조사 시작, 2007년

#농장동물도 생명입니다 #소_돼지_닭 #최소한_동물복지인증 #채식확산

2000년대 후반 무렵 국내 동물권리와 동물복지 운동은 활성화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주로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동물단체 회원들의 관심 역시 개나 고양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농장동물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폭을 넓히고, 향후 농장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당 활동은 KBS 환경스페셜 <동물공장>의 제작 배경이 되어, 이후 다수 언론이 농장동물 복지에 대해 기획 보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농장동물은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대표적인 동물로, 공장식 축산의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생애 고유의 본성과 습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소, 돼지, 닭 등 국내 농장동물의 수는 약 1억 8,000만 마리에 달하지만, 산란계의 경우만 해도 동물복지 농가는 전체 농가의 2%에 불과한 수준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동물복지축산물 인증제도

공장식 축산에서 공산품 취급을 받는 농장동물의 사육 환경은 잔인하고 열악합니다. 소비자의 소비 전환으로 농장동물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물 국가 인증제도가 생겼습니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 젓소, 염소 그리고 2016년 오리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6

계간 <함께 나누는 삶> 창간, 2008년

#동물보호계간지 #13년간발행 #함께나누어요 #회원소통

단체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대중 그리고 회원들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계간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삶>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0년 46호까지 13년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발행되었습니다. 창간호가 다른 내용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 동물 입양, 길고양이 TNR, 농장동물 실태 알리기, 채식 권장, 동물보호법 소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함께 나누는 삶>은 인간이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다양한 동물과 동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은 13년간 쉽 없이 발행해왔으나 시대의 변화와 회원의 니즈에 맞추어 이제 다시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부터는 새로운 포맷과 형태를 더하여 대중 그리고 회원들과의 더욱 효과적인 소통의 매개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손혜원 / 창간호 편집 & 진행

다수 시민분께 배포될 동물보호지 제작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순간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단체 활동가가 고작 5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내부 역량만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건 많은 회원분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신문에 재직 중이시던 회원님, 일러스트 작가인 회원님 또 각 전문분야에서 원고를 써주신 회원님 등등... 고백하건대 <함께 나누는 삶>은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이 계셨기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7

잠실 동물학대 사건, 2010년

#강아지8마리_학대 #때리고_죽여도_500만원내면_그만? #동물보호법강화_질실 #무려6만명_서명

강아지 8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며 자신의 죄를 부정하던 학대범은 증언과 증거들을 내밀자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학대범은 개를 때려죽이고, 발톱을 뽑고, 신체 부위를 라이터로 지지고, 산 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벌였습니다. 피학대동물 중 한 마리는 배 속에서 커터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학대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서명에 무려 6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당시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5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수준의 동물보호법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준 시민들로 인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강화되었고, 2021년부터는 동물학대를 저지르면 최대 3,000만 원 이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동물학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동물권은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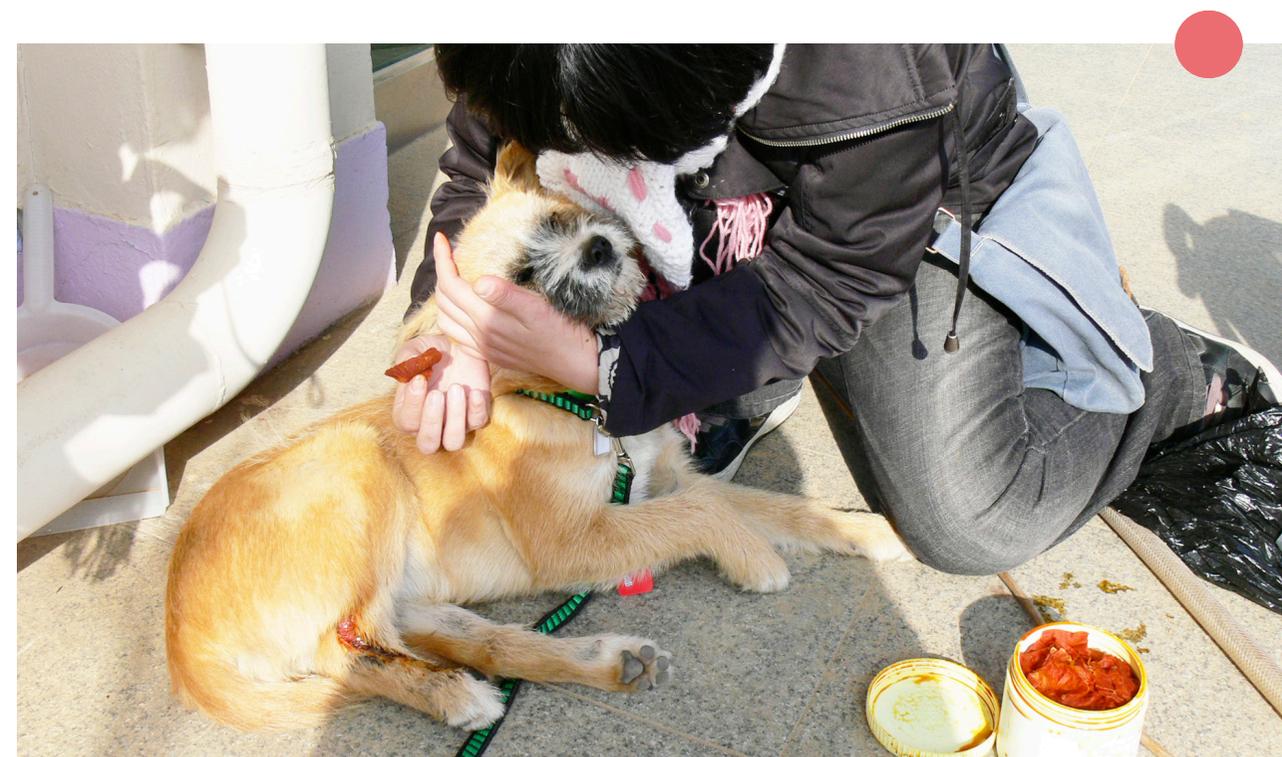
연평도 포격 동물 구호 활동, 2010년

#연평도_포격 #국가적_재난상황 #위기동물구호 #남겨진_동물들

2010년 11월 23일 오후 연평도에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군에서는 최고 경계태세가 발령됐고, 연평도 지역 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간 곳엔 개와 고양이 등 동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허가되자마자 동물자유연대는 연안부두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의 경우 자라면서 목줄이 살을 파고들 수 있기에 목줄을 풀어주고, 주변의 분변을 치우며, 먹이를 주는 등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11월 28일 오후와 29일 오전까지 확인한 개들은 총 40여 마리, 고양이는 10여 마리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개의 경우 적게는 70~80마리, 많게는 200여 마리까지도 섬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모든 개를 다 구조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는 국가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위기 상황 시 동물자유연대와 같은 단체가 더욱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위기 동물에 대한 대응 매뉴얼 수립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9

시대착오적 세빛섬 모피쇼, 2011년

#시대착오_세빛섬_모피쇼 #No_Fur_No_Fendi #입지_말고_안아주세요

2011년 6월 2일 '디자인 서울'의 중심으로 한강 세빛섬을 홍보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 '펜디(FENDI)'의 모피 패션쇼가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5월 31일 서울광장에서 동료단체들과 함께 펜디 모피 패션쇼 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당일인 6월 2일에는 세빛섬 펜디 패션쇼장에서 모피쇼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펜디 모피쇼는 전 세계로 방영되었고, 모피쇼 반대 집회 역시 SNS로 전 세계에 퍼지며 한국 사회의 동물권 의식의 변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효리

가수 이효리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혁신 창'의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장님, 5월 16일자로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에선 모피판매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말 모피쇼가 열리도록 방관하실 건가요?'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모피쇼 반대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밍크

족제비와 동물로서 모피로 가장 많이 사육되고 희생되는 대표적 동물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밍크 사육을 금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밍크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한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수천 마리의 밍크를 불결하고 밀집된 환경에서 키운다. 공장식 축산은 그 자체로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확산시킬 잠재력이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0

하프물범 캠페인 진행으로 윤리적 소비 구축,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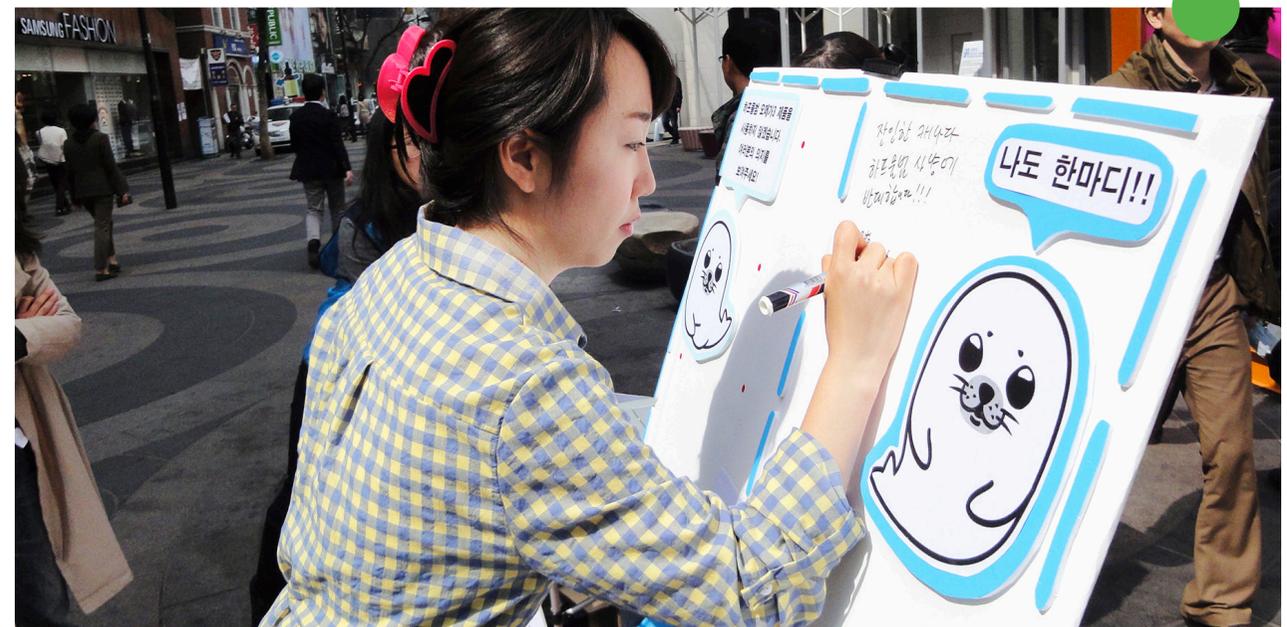
#소비전환 #윤리적소비 #건강보조제_사용_반대

캐나다에서 3년 동안 100만 마리가 넘는 하프물범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개체수 조절이라는 이유로 몽둥이로 맞거나 산 채로 가족이 벗겨지는 잔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동물 살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잔인한 사냥방식 탓에 유럽연합은 일찌감치 하프물범 제품의 수입부터 생산물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메가-3 제품 판매를 위해 캐나다산 하프물범 기름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오던 상태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HSI와 함께 하프물범을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했고, 7개 주요 제약회사들이 하프물범 기름을 사용한 오메가-3의 생산을 중단하는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판매 중단도 끌어내었는데, 이는 모두 많은 시민들의 거센 소비 거부와 항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프물범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서식하며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탁월한 헤엄 실력을 바탕으로 물고기와 갑각류 등을 먹고 살며, 보통 1마리의 새끼를 유빙 위에 낳습니다. 새끼는 생후 약 2주까지 솜털 같은 흰색 털이 있는데, 이 털 때문에 수많은 하프물범 새끼가 모피업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1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 2012년

#윤리적소비 #화장품 #동물실험_반대 #글로벌캠페인

동물자유연대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자 활동하는 국제연대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의 한국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학자가 동물과 사람의 인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험실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사육된 실험동물의 상태 때문에 동물실험은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전 세계 80% 이상의 국가에서 여전히 화장품 동물실험을 허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63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2017년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한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2

● 최초의 동물복지센터, 온센터 개관, 2013년

#국내최초 #선진형 #동물복지형_보호소 #생명에_불을켜다

온센터는 국내 현존하는 동물보호시설 가운데 첫 선진형 동물복지시설로서 201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개관하였습니다. 온센터는 2009년, '동물보호시설에서도 동물복지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도 선진적인 보호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생존형 보호소를 지양하고 동물복지형 반려동물센터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시민의 참여로 희망이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제1호 반려동물복지센터의 건립은 우리 사회에 제2, 제3의 선진형 보호소 건립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온센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대와 사회적 소외로 고통받는 동물들과 애니멀 호더, 불법 번식장, 식용의 위기에 있던 농장의 개와 고양이들이 새 생명과 새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갑돌이, 달냥이, 건이

2009년 애니멀 호더에게서 구조된 갑돌이,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달냥이 그리고 보호자가 동물 병원에 버리고 간 이후 새 가족을 만났지만, 몸이 아파 다시 동물자유연대로 돌아온 건이는 동물자유연대 온센터의 터줏대감들입니다. 이 세 동물 친구들은 안락사 없이 평생보호 원칙으로 운영되는 온센터와 동물자유연대 보호시설에서 1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2013년

#남방큰돌고래 #쇼돌고래_반대 #불법포획 #제돌이



2013년 여름 제돌이가 제주 앞바다로 돌아왔습니다. 2009년 그물망에 잡혀 수족관으로 끌려온 뒤 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돌이는 불법으로 포획돼 전시와 공연에 사용되던 남방큰돌고래였습니다. 이런 제돌이의 야생 방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동물자유연대는 관련 캠페인과 함께 돌고래 방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해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야생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를 전시 및 공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돌이 방류를 시작으로 시민들은 돌고래가 있어야 할 곳은 자연이라는 점을 인식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돌이를 포함해 총 7마리의 돌고래가 방류되었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고래류의 추가 반입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시점에도 전국적으로 23마리의 돌고래와 7마리의 벨루가가 전시 및 공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갇혀 있는 벨루가 및 돌고래들의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돌이와 6마리 돌고래

2009년 여름 제주 앞바다를 헤엄치던 제돌이는 어민의 그물에 걸려 제주도의 한 수족관에 팔려갔습니다. 야생에서 태어나 살아 있는 물고기를 먹던 제돌이는 냉동 생선을 강요받아야 했고, 이를 먹지 않으면 굶게 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이후 서울대공원으로 옮겨간 제돌이는 공연과 전시에 사용되었지만 동물자유연대와 서울시 등의 협업을 통해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방류된 제돌이는 현재까지도 제주 앞바다에서 돌고래 무리와 짝을 이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대포 등 6마리의 돌고래가 방류되었습니다.





14

● **캣맘 · 캣대디 풀뿌리단체 지원, 2016년**

#지역단체 #캣맘협의체 #캣동지TNR #협업

지역의 입양문화를 확산하고 전국 지자체의 길고양이 TNR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풀뿌리단체, 캣맘·캣대디협의체와 협업했습니다. 안락사 위기의 유기동물을 구조해 입양 보내는 한편, 지역 캣맘·캣대디 조직의 TNR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관련 지역 민원 발생 시 함께 해결하거나 지자체 행정에 대응하는 등 협력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동물운동 방식으로는 전국 곳곳의 동물이 민간 영역 활동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 조직들과의 협업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동대문구 캣맘협의체 <행복냥이 꿈꾸개>

“동물자유연대의 캣맘협의체 TNR 지원사업으로 길고양이들의 마구잡이 TNR이 아닌 중성화 수술부터 아픈 아이들 검진과 치료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받고 안심하며 방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이런 지원과 혜택이 저희 길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길고양이 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15

강아지 공장 실태 폭로, 2016년

#강아지공장_반대 #반려문화의_그림자 #펫숍_뒤_진실 #동물학대증지

2016년 전남 화순군에 자리한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화려한 펫숍 뒤에 숨겨져 있던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며 강아지 공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고, 1년 뒤인 2017년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가 법적으로 강화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전담부서로서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동물학대와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17년 7월 30일에 발표했습니다. 또 강아지 공장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되자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펫숍을 통한 분양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자 이를 악용해 돈벌이하는 곳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종펫숍'으로 '인락사 없는 보호소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유기파양 동물 분양을 권장하는 동시에 거액의 입양비와 파양비를 받는 상태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올바른 입양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최선의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디

아프간하운드 '신디'는 전남 화순 번식장에서 극심한 영양실조를 앓다 구조된 개입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료 동물단체 그리고 수의사단체가 함께 진행한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 신디가 함께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디는 동물자유연대를 통해 임시보호자를 만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16

법률지원센터 출범, 2017년

#동물권옹호 #동물학대대응 #법률전문가집단 #동물자유연대.전문기관

법률지원센터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미약한 처벌에 대응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제도 개선 활성화 등을 위해 2017년 12월 20일 출범했습니다. 국내 동물단체 중 최초였습니다. 법률지원센터는 출범 이래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농림식품부의 대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대응포럼,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 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동물 이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매뉴얼/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송시현 변호사가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세미나에 참여해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입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를 통해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동물 관련 이슈들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이를 쉽게 정리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7

케이지프리 Cage-Free, 2018년

#암탉해방 #비인도적사육 반대 #철창감금 반대 #기업의 윤리적 소비

산란계 암탉을 철창에서 해방하기 위한 활동을 오랜 기간 해왔지만 법제도 강화와 개인 소비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8년부터 잔인하게 얻은 달걀을 판매, 유통, 소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케이지프리' 활동을 기업을 상대로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케이지프리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그 첫 결과로 2018년 풀무원이 자사가 판매 중인 달걀을 동물복지 달걀로 전환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백만 마리의 암탉들이 비좁은 케이지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 계속되는 케이지프리 활동은 2019년 스타벅스와 서브웨이의 케이지프리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케이지프리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케이지프리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동물자유연대는 더 많은 암탉에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풀무원

당시 시중에 판매되는 브랜드 달걀의 80%를 공급하던 풀무원이 케이지프리 선언 10년 내 자사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 달걀 전체를 '동물복지란'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

● 사자 가족의 생추어리 이주, 2018년

#서울대공원 #사자가족 #사자구출 #생추어리

2015년 2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사육사가 사자 두 마리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자 두 마리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방이 콘크리트로 된 방 안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비극적인 사고를 고려 하더라도 총 세 마리의 사자들을 계속 좁은 내실에서만 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의견을 수차례 어린이대공원에 전달하고, 사자들을 제3의 장소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동물자유연대는 사자 가족을 미국의 야생동물 생추어리(TWAS)로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는 전시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자들의 해외 생추어리 이주를 계기로 단지 인간의 볼거리 충족을 위해 생명체를 좁은 공간에 가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와 정부의 동물 전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들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TWAS 초원으로 이주

세 마리의 사자들이 이주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THE WILD ANIMAL SANCTUARY'는 1980년 팻 크레이그(Pat Craig)에 의해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비영리 야생동물보호 생추어리입니다. TWAS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스페인 등에서 동물원, 서커스에 이용되었던 동물들과 전시시설에서 과잉 번식으로 인해 안락사에 직면한 동물들에게 영구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

구포 개시장 폐쇄 쾌거, 2019년

#3대_개시장 #부산구포시장 #개도살 #개식용금지

성남 모란시장 철폐 쾌거에 이어 전국 3대 개시장으로 불리던 부산 구포 개시장이 폐업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개 식용 산업은 우리 사회에서 쇠퇴하고 있는 산업임을 공공연히 천명했습니다. 구포 개시장 폐쇄는 시장 내 개 도살뿐 아니라 개고기 판매 등 모든 영업이 완전히 종료한 최초의 사례이며 일방적 폐쇄가 아닌 지자체, 상인회, 동물보호단체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민주적 합의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 식용 철폐와 개시장 폐쇄는 수많은 동물보호단체의 오랜 주장입니다. 정부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시장인 '대구 칠성 개시장' 철폐를 위해 매년 캠페인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합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포 개시장 철폐는, 개 식용 산업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관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행동해야 할 문제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와 북구청은 전담TF 설치, 상인회와의 협약 체결,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구포 개시장 폐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일방적인 폐쇄가 아닌 상인회와의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조율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개시장 철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지자체에게 구포 개시장 폐업 사례는 훌륭한 선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개고기 관련 모든 영업행위가 중단되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친 수평적 폐업 사례이기에 개 식용 종식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

사육곰에게 자유를, 2020년

#응답채취.반대 #사육곰 #반달가슴곰 #생추어리

40년이라는 긴 시간 풀리지 않는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산업의 종식과 남은 사육곰의 보호를 위한 생추어리 건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사육곰 농가 현장조사와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해 사육곰의 열악한 복지 실태를 알리고, 생추어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육곰의 비인도적 도살과 불법 취식 의혹을 알리고, 생추어리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해 3만 명의 시민 지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국내 사육곰의 5%에 해당하는 22마리 사육곰의 생추어리 이주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갈 곳 없는 사육곰을 구출해 해외의 생추어리로 이주시킴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육곰을 구하고 나아가 정부에 남은 95%의 사육곰을 위한 생추어리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육곰의 생추어리 이주는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추어리 이주를 목표로 한 사육곰 구출은 1981년 곰 사육이 시작된 이래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425마리 사육곰(2020년 6월 기준)

정부와 농가의 무관심 속, 좁은 철장에 갇힌 채 425마리의 사육곰이 기약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응답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골칫덩이가 되었고, 농가에서는 유지비 절감을 위해 제대로 된 먹이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사하거나, 간혹 나타나는 응답 수요로 도살되기 이전에는 비좁고 더러운 철장을 벗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가족은 입양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입양동물의 날 행사



kawa7022

Instagram



좋아요 486개

kawa7022 ♥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사진으로 보는 순간

“개식용, 이제 그만!”

개식용 종식 국민 대집회



개식용
이제 그만!

개도살장 철폐로
개식용 종식으로!

BERNARD BUFFET
베르나르 뷔페 展
2019.06.08 - 09.15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F

신한은행 신한금융교육센터 광화문캠퍼스

신한갤러리

연치과
722-8272

ETS TOEFL
(02)3701-

남성전용 승차권 전용차량
1,2차도 3,4,5차도 6차도

KB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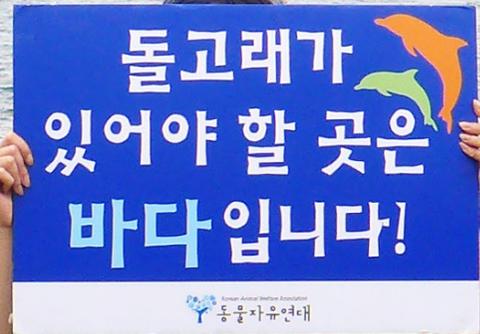
F.n Bank

동행 자유연대

사진으로 보는 순간

“돌고래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다입니다.”

남방큰돌고래 대포, 금등 방류현장



사진으로 보는 순간

“국가재난 속 위기동물에 내민 온정의 손길”

2019년 고성 산불 현장



사진으로 보는 순간

“사육곰도 멸종위기 반달가슴곰입니다.”

사육곰 구출 프로젝트



“오늘, 동물자유연대”



02

2만여 회원, 그리고 50여 명의 상근 활동가로 구성된 지금의 동물자유연대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동물단체입니다.

20년의 과거를 통해 이룩한 현재로서,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갈 주춧돌로서 오늘의 동물자유연대를 소개합니다.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365일 동물들을 위해 열정을 쏟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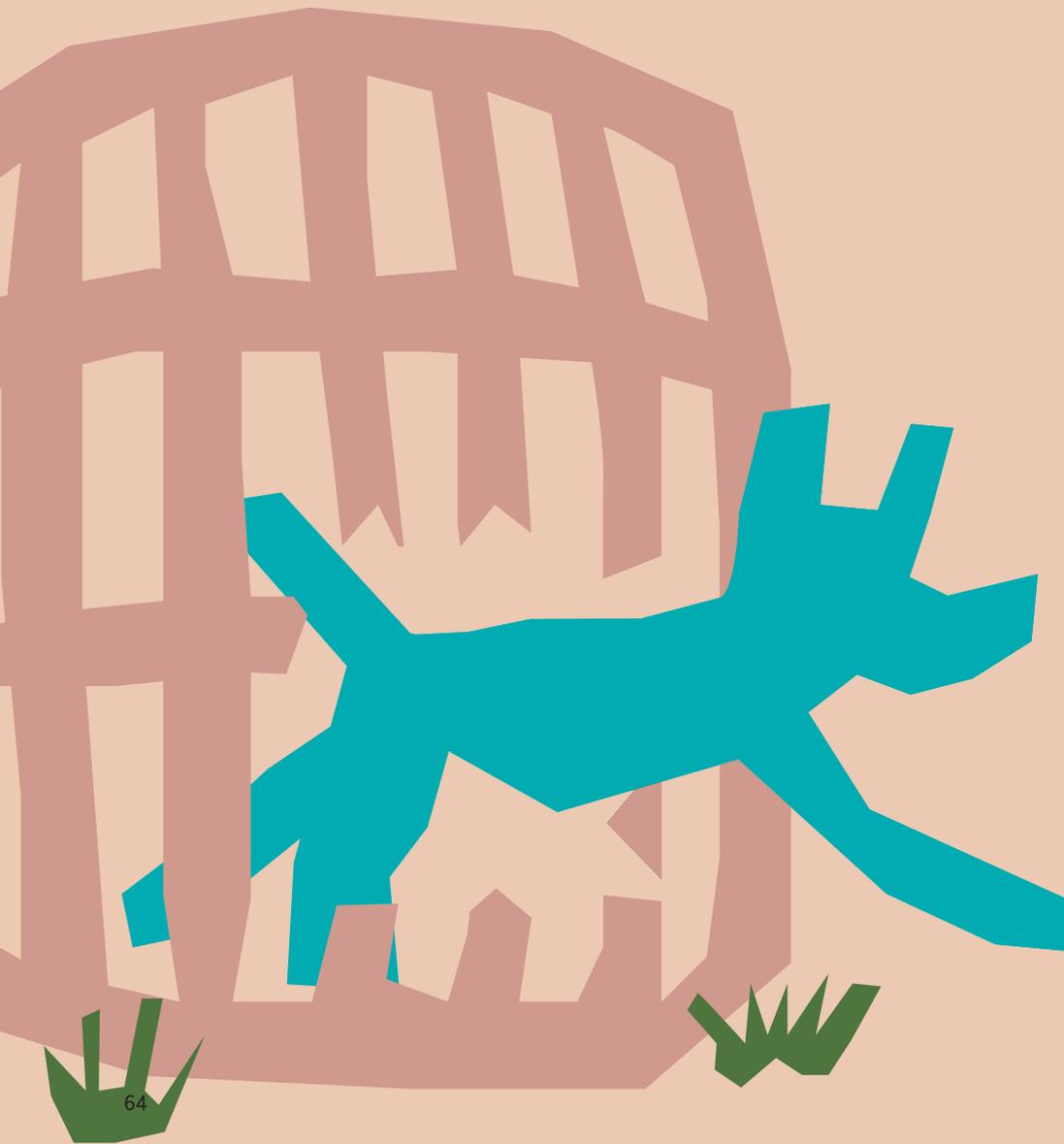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진에 나오지 못한 촬영자 최민, 조영연, 이나혜, 강다솜, 오정민, 이해민도 온 마음으로 함께!

연간 구조동물 수 396마리

동물자유연대 온센터의 경우 제한된 공간 탓에 입양되는 수만 큼만 새로 입소할 수 있기에, 제보자의 임시보호나 입양 등 구조된 동물의 안정적인 거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위기동물구조 *2019년 기준



연간 위기동물
관련 상담 수
4,235건



전체 상담 및 제보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수
6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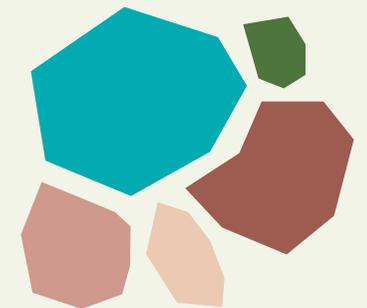


접수된 위기동물
상담 건 가운데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건수
142건



자체 진행 고발 건수
11건

동물학대 유형



- 열악한 사육환경 38.3%
- 물리적 학대 32%
- 방치 18.5%
- 유기/목졸 6.7%
- 약품 및 화학물질로 인한 학대 4.5%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대응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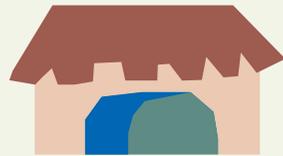
80건



생명을 보호하는 일 평생보호와 입양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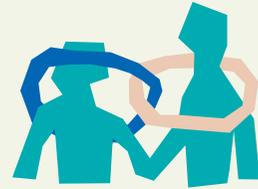
375

동물자유연대 총 보호동물 수
내부 과밀화로 외부에 위탁된
100여 마리의 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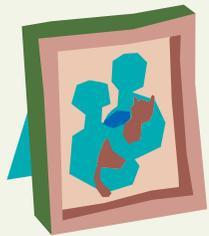
연간 동물자유연대 온 센터에
새로 입소하는 동물 수

154마리



동물 1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결연회원 수

22명



동물자유연대에서 지난 20년간
새로운 가정을 찾아준 동물 수
(문서로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를
시작한 2009년부터는 총 950마리의
동물이 입양됨)

1,500여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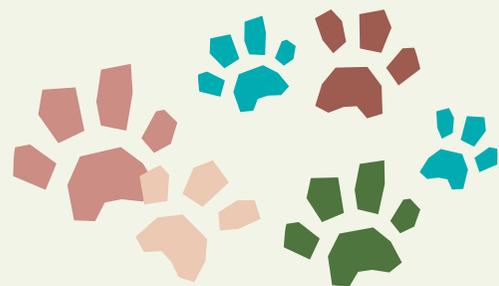
온센터 보호동물의 평균 나이
더 많은 시민이 사지 말고 입양할수록
평균 나이를 낮출 수 있으며,
보호소가 아닌 가정에서 가족과
생을 보낼 수 있게 된다.

7세



온 센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령견의 나이
(2020년 기준)

20세



동물관리 활동가 1명당 보호동물 수
온 센터는 1년 365일 운영하기에
동물관리 활동가들은 돌아가며 동물을 돌본다.
당일 출근 활동가 기준으로는 1인당 21마리.

14마리

함께 지키는 일 시민구조지원 *2019년 기준



연간 동물자유연대를 통해
위기동물 구조 지원을 받는 시민 수
동물자유연대는 시민구조 지원을 통해
현재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위기동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359명



시민이 구조하여 치료한
개의 수

59마리



시민이 구조하여 치료한
고양이의 수

291마리



시민이 구조하여 치료한
토끼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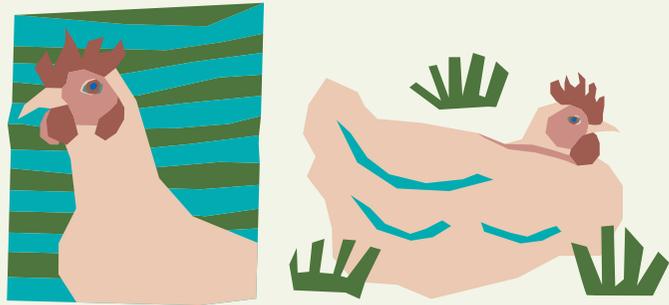
8마리

시민구조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집행 금액
동물자유연대에서 진행하는
단위사업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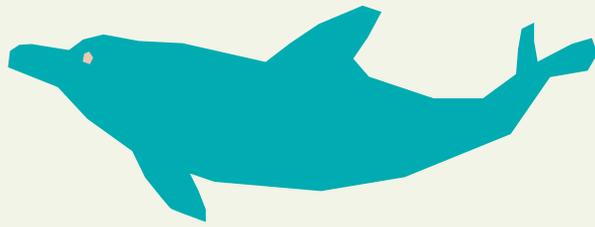
1억 9,469만 4,814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캠페인 *2019년 기준



케이지프리 캠페인 덕분에
앞으로 10년 내 케이지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암탉 수

95만 9,657마리



좁은 수족관에서 다시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의 수
제주 앞바다에 가면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

7마리



생추어리로 이주시킨 사자의 수
구출되기 전 두 마리 사자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방에 갇혀 있었다.

3마리



동물자유연대가 단독으로
진행한 서명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했던 동물학대
엄중 처벌 서명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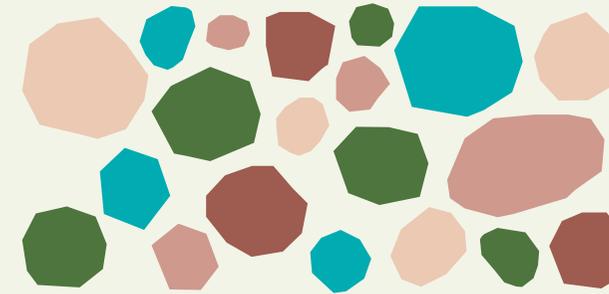
6만 587명



강아지 공장 사건으로
시작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에 이를 만에
무려 20만 명이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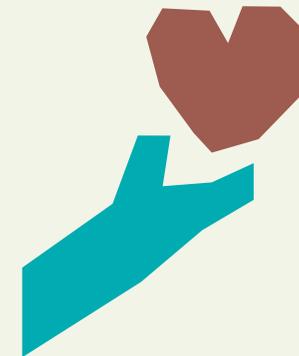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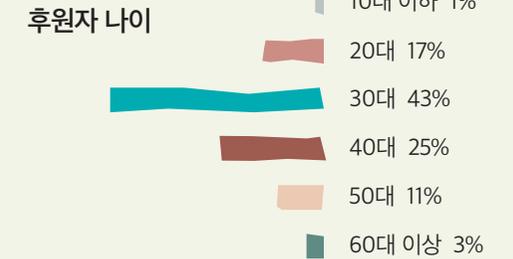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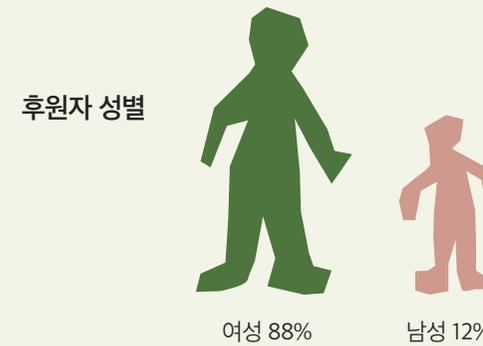
20만명

동물의 수호자 회원과 시민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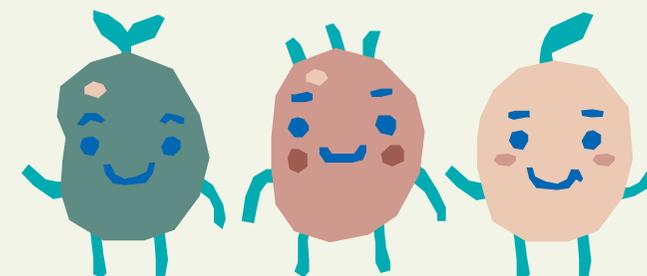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 정기 후원자

1만 8,638명



1인당 평균 정기 후원금

1만 9,805원



해피빈 플랫폼을 통한 시민 후원자

19만 1,793명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1. 위기동물을 구조합니다

산꼭대기부터 무인도까지, 학대와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동물을 위해 위기동물대응팀이 장소 불문 달려갑니다. 구조 동물은 제보자가 책임지거나 동물자유연대 내 입양 공고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2. 학대 사건에 대응합니다

동물은 사회적 절대 약자이기에, 다양한 방식의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자를 엄벌해 더는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시민구조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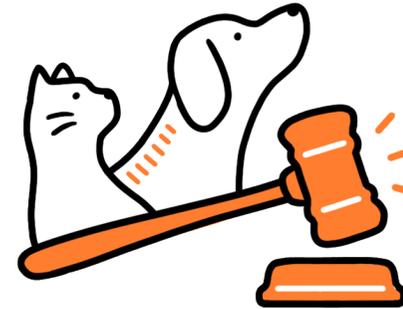
우리 일상 곳곳에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동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힘써주고 계시지만,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이에 따르는 책임은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기동물 시민구조 지원사업인 '쓰담쓰담'으로 위기동물을 위한 민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본부는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국·운영지원국·모금홍보국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물과 사람의 바람직한 공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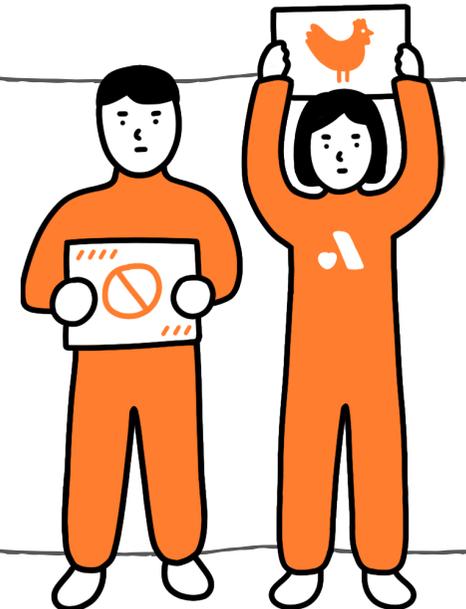


4.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동물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사회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선하며, 행정기관이 동물보호와 복지를 책임지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연구나 조사 활동은 동물의 사회권 확보에 필요한 기반입니다.

5. 다양한 영역의 동물을 대변합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존엄을 지키고 생태 습성을 고려해 살 수 있도록,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을 바꾸어 나갑니다. 캠페인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우리는, 동물의 중심스러운 대변자입니다.



b. 시민의 생명 감수성을 키워줍니다

동물에게 가해지는 잔혹 행위가 더는 허용되지 않도록, 건전한 동물 의식을 가진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팀에서는 동물의 생명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1. 보호소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국내 최초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난 2013년 선진형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보호소 동물이 생존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도록 온센터는 선봉에서 동물복지 역사의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2. 평생 책임집니다

온센터 입소 동물은 보호 기간이 한정적인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와 달리 입양을 가지 못해도 평생을 온센터에서 활동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냅니다.



3. 적절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전염병 검사와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며 각종 질병 발생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온센터는

국내 선진형 동물복지시설의 첫 사례로서 2013년 8월 남양주에서 개관했습니다.

온센터는 학대와 사회적인 소외로 고통받는 동물들과 애니멀 호더, 불법 번식장, 식용 위기에 있던 개와 고양이들이 새 생명과 새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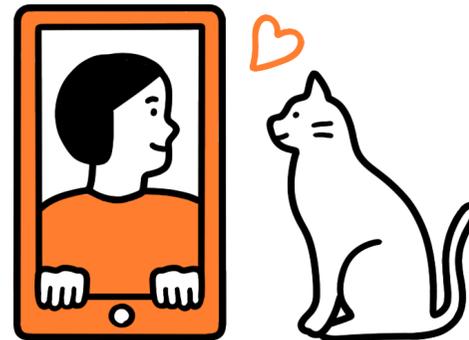


4. 새 가족을 이어줍니다

평생 보호를 제공하지만, 동물들이 가장 행복한 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매칭을 통해 한 번 상 처받은 영혼들이 두 번 다시 상처받지 않고 사랑받도록 입양 사업을 진행합니다.

5. 사설보호소를 지원합니다

온센터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설보호소에 도움을 주고자 꾸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료 지원부터 활동가들로 구성된 봉사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6. 결연으로 희망을 보여줍니다

온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건 결연회원 분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손길 덕분입니다. 많은 분이 결연후원을 통해 구조 동물의 삶에 등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새 삶을 제공받는 동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 남겨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20년, 함께 나눌 삶”



03

우리의 귀는 회원과 시민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입은 말 못 하는 동물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나온 20년 동물자유연대는 회원, 시민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한 동물들과 교감하고 공감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년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말 못 하는 동물의 목소리가 되고자 합니다.

고백하건대 아직, 스무 살 청년 동물자유연대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더욱 진일보한 활동으로 동물에게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민하며 청사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약속합니다

20년간 동물의 권리와 더 나은 삶,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물자유연대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고백합니다. 아직 동물자유연대는 목표했던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합니다. 앞으로 동물자유연대는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Mission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



Vision

인간이 관리하는 모든 동물이 인도적 대우를 받게 하며, 나아가 인간이 이용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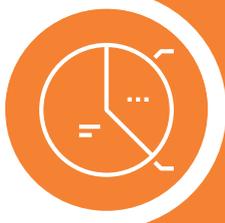
Core Value

- *생명 감수성 *권리 옹호 *일상의 실천
- *존중과 배려 *합리성 *소통과 협력



Strategy / Action Plan

-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 감수성 확산,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 *동물 권리의 정립: 사회권 확보, 연구조사
- *동물 권리의 실현: 동물 복지 증진, 동물 이용 축소



생명 감수성 확산

“다양한 동물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아동 청소년 기본 생명 교육

국내 최초 선진형 보호소인 동물자유연대 온센터에 미래의 주역들을 초청해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삶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깨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시민활동가 양성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을 지역 주민들이 이웃으로서 돌볼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다양한 동물에 대한 인식 고양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동물에 연민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반려인구와 반려동물의 증가세만큼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반려인/비반려인 펫티켓 확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서로가 지켜야 할 펫티켓을 알리고 정착시키겠습니다.

▶ 반려견 사회화 훈련의 생활화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려견 사회화 훈련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견의 권리를 확장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동물유기 및 학대 예방

반려생활의 끝이 비극적인 동물학대로 끝나지 않도록 반려인의 의무와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하는 문화를 바꾸어나가겠습니다.

▶ 보호소 동물 입양 활성화

화려한 펫숍 뒤에 숨어 있는 강아지 공장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사지 말고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반려인으로부터 상처 받은 유기동물, 유실동물 그리고 위기에서 구조된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회권 확보

“동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과 제도의 영역에 포함하겠습니다.”

▶ 헌법에 동물권 명시

각 법률별로 정의하거나 다루고 있는 동물의 위상과 최소한으로 필요한 동물복지 수준이 천차만별, 주먹구구인 현재의 형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생명체로서 동물 관련법 강화

여전히 민법에서는 동물을 소유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 역시 협소할 따름입니다. 물건이 아닌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강화하겠습니다.

▶ 동물복지 국가위원회 설치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가 전체 행정의 영역에서 동물 복지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기동물 사회안전망 구축

겨우 생존만 보장되거나 때로는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고통받고 있는 유기, 유실, 상해, 학대 상황에 놓인 다양한 위기동물을 위한 민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연구조사

“동물 권리 확보와 실행의 근간이 되는 기초 연구와 실태 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 동물 정책연구 전문화

현실 상황에 대한 일차적 대응에 급급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도록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투자하겠습니다.

▶ 축산업 과제 연구

기존 생산성에 집중된 축산업 연구를 벗어나 동물복지와 동물권의 관점에서 축산업의 개선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동물법 연구

땀질식 처방으로 점철된 국내 동물 관련 법들을 종합 검토하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동물법을 설계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증진

“일부 종과 일부 개체에 국한되지 않도록 동물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 민간 ‘동물학대 대응 및 구조’ 전문화

동물학대 대응 및 구조 활동에 대한 단체의 전문성을 구축, 국가기관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행정의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동물을 위해 민간의 대응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민간 동물보호소 지원 및 개선

생존형을 넘어 복지형으로 전환하고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보살핌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물보호소를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축산 소비 동물복지인증 전환

소비자의 소비 전환, 기업 판매 제품의 윤리적 전환 등 작은 실천이 모여 농장동물의 동물 학대적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시동물 생추어리 이주

철창에 갇힌 야생동물이 보다 넓고 자연 친화적인,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본디 습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추어리로 이주시키고자 합니다.

동물 이용 축소

“동물복지에 그치지 않고 이용 자체를 줄여 동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 개 도살 금지, 개 식용 철폐

국내 동물운동계의 가장 큰 숙제로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 식용 관습을 종식시키겠습니다.

▶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 규제 강화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이 맹목적인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가 축소되도록 하겠습니다.

▶ 채식 선택권 보장

채식 인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과도한 육식 중심 식문화 개선

농장동물을 위해 그리고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상 모든 생명을 위해 일상에 자리 잡은 과도한 육식 중심 식문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물원 패러다임 전환

종 보전을 위한 시설이라 홍보하지만 사실상 오락에 치중된 동물원의 현실을, 동물복지를 넘어 생태 습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좌로부터 PAPER 편집장 정유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서미진, 변호사 정이수,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과 교수 천명선,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황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한국일보 기자 고은경, <Oh Boy!> 편집장 김현성.

동물권, 연대의 폭을 넓힐 때

동물자유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불모지와 같던 국내 동물복지 현실 속에서 동물자유연대가 걸어온 길 뒤에는 빛나고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여전히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많은 동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스무 살, 어엿한 청년이 된 동물자유연대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뜻깊은 시간을 위해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과 교수, 김현성 <Oh Boy!> 편집장, 황윤 다큐멘터리 감독, 정이수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고은경 한국일보 기자, 배다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서미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등 7인이 좌담에 참석했으며, 좌담 진행은 문화잡지 PAPER 정유희 편집장이 맡아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진중하고도 뜨거웠던 좌담 현장을 이 지면에 옮깁니다.

정유희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동물자유연대 (이하: 동물자유연대를 줄여서 '동자연'이라 표기한다) 20주년 기념 좌담을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천명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수의인문사회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수의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동자연에서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자문도 드리고, 같이 협업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힘을 합쳐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이수 저는 2012년에 변호사가 된 후, 조희경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동자연에 변호사가 도움 일이 있는냐고 여쭙보면서 그때 처음 동자연과 인연을 맺었어요. 처음엔 동자연을 도와 법률 상담을 하다가 2018년 법률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다른 변호사분들이 대거 합류했는데, 그 이후로 저도 같이 공식적으로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황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가 제가 주로 다루는 주제예요. 동자연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구제역 살처분 사건을 겪으면서 2011년 1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무작정 조희경 대표님을 만나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1,000만 원이란 큰돈을 쾌척해주셨어요. 그 돈이 씨드 머니가 돼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어요. 또 '동물을 위한 행동'의 전채은 대표님과 동자연 조희경 대표님, 한겨레 남종영 기자님과 함께 제 첫 영화의 주인공인 호랑이 '크레인'이 살고 있던 <치악드림랜드>의 열악한 실태를 언론에 알리면서 동물원법이 필요하다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단숨에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동물권 이슈를 함께 겪으며 동자연은 제게 아주 고맙고도 힘이 되어주는 단체가 되었어요.

서미진 안녕하세요, 저는 동자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서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자연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어요. 첫 직장을 퇴사하고 잠시 쉴 때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그 일을 계기로 동자연에서 활동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김현성 동자연은 제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1970년대 말부터 동네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돌보셨고, 집에는 늘 길에서 온 고양이와 강아지가 30마리 이상 있었어

요. 제가 해외에서 사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동자연을 통해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계셨고, '사진가인 내가 도움을 줄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 동자연과 인연을 맺었어요. 상업사진 작업을 하다가 2009년부터 환경과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패션 문화잡지 <OhBoy!>를 만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동자연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 저도 동자연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배다해 저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입니다.(웃음) 2003년 MBC에서 방영한 개고기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3년 정도 대구의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보호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폭넓게 동물보호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동자연과 인연을 맺은 후, 지금껏 함께해 오고 있어요.

고은경 저는 한국일보에 근무하고 있고, 평소 동물과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와 관련한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2016년에 한국일보에서 디지털 분야를 강화하면서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라는 뜻의 '동그람이' 팀을 꾸려서 2년 정도 작업을 했고, 2017년부터 한국일보와 네이버가 국내외 모든 동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동물공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합작회사(주)동그람이)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동물권 역사와 함께한 20년, 이제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되돌아봐야 할 때”

정유희 동자연을 비롯한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이 이어져 오면서 국내 동물권이나 동물운동의 방식들에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명선 국내 동물권도 많이 체계화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환경 분야 활동가나 인권 활동가들이 동물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전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변모했다고 판단돼요. 또 최근 '동물이 인간과도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학계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어요.

황윤 예전에는 동물권 운동이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캠페인 운동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제도를 바꾸는 쪽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일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수행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성 동물과 환경에 관한 활동에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또 생각과 방향성의 상이함과 다양함도 있고요. 그런데 단체들끼리 그걸 서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수록 동물단체의 사람들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물단체의 사람들끼리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책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 눈에 동물단체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저는 동물권에 별반 관심 없고, 육식을 즐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우습게 보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또 매체나 방송에서 비치는 어떤 내용들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진정성 있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해도, 대다수가 방송에 노출되는 귀여

운 동물들의 이미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방송에 등장해 유명해진 품종견과 품종묘가 크게 유행했다가 많이 유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유희 최근 일본의 유기동물에 관련한 영화 <개에게 처음 이름을 지어준 날>을 보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일본의 동물권 활동가와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그 행태와 양상이 묵묵하고 우리의 현실보다 조금은 평안하고 온유한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게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동물운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반면 국내 동물권의 역사나 동물운동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아직은 갈등이 심하고 서로 연대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김현성 편집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며 함께 나아가고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목표들을 위해 너무 가열차게 치달아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놓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물자유연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이 무렵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까’ 같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함께 고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돌이 방류는 동자연의 성과이자, 많은 사람의 관심과 연대가 만들어낸 쾌거!”

정유희 동자연의 활동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장려,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개시장 철폐, 강아지 공장 공론화 등 여러 활동이 생각나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동자연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고은경 첫 번째로 제돌이 방류가 떠올라요.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첫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돌이 방류는 여러 단체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룩한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동자연의 활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다음에는 강아지 공장 이슈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이슈를 계기로 주요 언론에서도 더는 동물을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생명 그리고 동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정이수 저도 제돌이 방류 이전까지 동물에 대한 법원의 몰수형 판결을 본 적이 없어서 제돌이 방류를 염원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간혹 검찰이 동물에 대한 몰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기에 처한 동물을 몰수하더라도 이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돼요. 그런데 제주지법에서 몰수 판결을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도 작은 수족관에서 고통받던 제돌이가 바다로 방류되는 첫 순간이 잊히지 않아요. 더불어 법률적으로 몰수 판결이 났다는 것에 감동했구요.

정유희 제돌이 방류 이후 법률적으로 수족관의 운영 형태에 관해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정이수 수족관뿐만 아니라 동물원 등의 사육시설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어요. 20대 국회 때 관련 법적 제재 규정이 만들어져 사육장 시설이나 등록부터 엄격해졌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죠. 등록이나 허가의 규제가 있어도 편법을 사용해 피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명선 제돌이 방류의 경우 무엇보다 많은 대중에게 ‘동물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큰 의의인 거 같아요. 이전까지 동물을 가두지 않는 모습을 상상만 했었는데,

제돌이 방류는 그러한 우리의 상상을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훈련을 통해 방류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해요. 제돌이 방류와 동물원에 갇혀 있던 사자 가족을 야생 생추어리로 돌려보내는 등의 사례를 통해 동물권이 큰 자신감을 얻게 된 거 같아요.

황윤 제돌이 방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권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라 생각해요. 또 우리나라의 동물원법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반려동물의 차원에 머물렀던 우리 국민의 인식을 확장해준 좋은 사례이고요. 우리나라보다 동물권 운동의 역사가 훨씬 깊은 나라도 동물원법이 없는 나라가 많아요. 물론 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법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이후 꾸준히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인 제돌이 방류는 동물원 동물들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돌이 방류에 있어 동자연도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어떤 한 단체나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제돌이 방류는, 제주 <퍼시픽랜드>의 열악한 수족관에 갇혀 있는 제돌이의 상황을 목격한 해양환경단체 ‘햇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의 공론화를 시작으로 언론의 노력, 정치의 힘, 시민단체의 노력, 시민의 관심 등이 모여 이뤄낸 멋진 사례라고 생각해요.

배다해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아쩔 수 없이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돌이 방류가 부모들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함이 커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불쌍한 걸 잘 알지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제돌이 방류로 인해 우리가 그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많은 대중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서미진 저는 제돌이 방류가 동물권과 많은 대중에게 생각할 무언가를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제돌이 이후로 일곱 마리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갔고, 아직 방류되지 못한 돌고래가 한 마리 있는데, 이를 두고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과 그러지 않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에요. 저는 이 논의 단계까지 우리가 왔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제돌이를 방류할 때, 제돌이에게 낙인을 찍는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고통이 없는 낙인이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입장과 고통이 없으니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거든요. 명확한 답은 없지만, 제들이 방류는 이렇게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던져준 것 같아요.

김현성 저는 동물보호단체가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물보호단체는 재원이 필요하고,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슈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로 이슈가 불거지다 보면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연평도에 북한 포격이 있었을 때, 누가 먼저 섬 안에 남아 있는 동물을 구조할 것인가를 두고 동물단체끼리 경쟁했고, 또 모 동물보호단체의 수장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에 막대한 해를 끼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호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대중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슈를 좀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 존중과 더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장식 축산의 철폐와 탈육식”

정유희 주제를 바꿔서 채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 국내 채식 문화와 공장식 축산의 상황을 황윤 감독님께서 진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황윤 두 가지 논의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채식 인구와 산업이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는 부분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채식 인구와 산업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 공장식 축산 역시 규모가 늘어났어요. 따라서 우리가 채식 인구와 문화가 늘어나는 것에 희망만 가질 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을 하루빨리 제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급식 분야인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린이집 시절부터 현재까지 9년째 채식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채식을 할 경우, 군대까지 포함하면 채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공급식에서 약 20여 년간 배제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별이

고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을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요. 또 채식 선택권 도입을 위해 전라북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2020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채식 선택권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최근 군대에서도 채식 선택권이 도입됐어요.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입대를 앞둔 비건 청년 네 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국방부가 채식 선택권 도입을 결정한 거죠. 다만 채식이 군대 내에서 또 다른 인권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튼 국방부의 빠른 변화는 저 역시도 놀라워요. 제가 바라는 건 전국 교육청들이 개별적으로 채식 선택권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보다 교육부에서 채식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에요.

김현성 채식 캠페인 하는 분들이 육식을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반감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먹는 행위 자체로 비난받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나가요. 이걸 다른 맥락의 이야기인데, 한번은 한 가요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가수들이 '달걀이 맛있어요', '우유를 마시자'라는 캠페인송을 부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걸 방송 산업과 낙농업축산업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진 낙농업축산업 단체들이 매체를 통해 육식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해 보여주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에서는 현재 이런 캠페인을 쉽게 펼치기 어려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기와 달걀 등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거리낌 없이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상황이죠. 육식하는 사람한테 '무분별한 육식은 안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것보다 '육식은 옳은 일', '육식을 권장하자'라는 캠페인이나 목소리를 차단하는 방법이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황윤 그래서 저는 육식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기후위기를 말해요. 이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니까요. 사람들에게 전 세계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합친 것보다 공장식 축산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공장식 축산이 단일 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탈육식은 이미 동물권 이슈를 넘어섰고, 우리의 생존권 문제로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 반대와 탈육식에 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정이수 저도 아이 셋의 엄마로서 모유 수유를 고수하는 편인데요, 주변 아기 엄마들을 보거나 통계적으로 봐도 모유 수유 비율이 10%가 안 돼요. 모유 수유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젖을 누군가가 강제로 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이 엄마들에게 하면 간혹 여성의 인권 문제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모유 수유 3개월이 지나면 분유를 먹이자', '엄마의 삶을 더 중시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 반론에 부딪히다 보니까 분유를 끓이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황윤 감독님이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기후위기와 연결해 말씀하시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구의 수명인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윤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우유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낙농산업이 만들어놓은 판타지에 갇혀 있었어요. 푸른 초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소들의 젖을 짜는 모습요. 또 늘 소의 젖을 짜면 우유가 나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들 역시 출산해야만 젖이 나오는데 갓 태어난 송아지는 어미의 젖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송아지 고기가 되고, 그 대신 사람들이 우유부터 고기까지 남김없이 취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새끼를 강제로 빼앗기는 어미 소들의 트라우마를 생각했을 때, 같은 여성으로서 이러한 폭력과 시스템에 더는 동참할 수 없다는 결심과 함께 우유를 끊었어요. 최근 많은 여성이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유, 낙태죄 폐지를 외치고 있잖아요. 축산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건 여성 동물이에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고기 생산 기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또 알을 낳는 기계처럼 사는 암탉들을 봤을 때 여성 동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페미니즘과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 동물에 대한 폭력이 계속된다면 여성에 대한 폭력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유희 동자연의 주요 활동 중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의 출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 일컬어지는 요즘, 이와 함께 유기동물의 수와 학대받는 동물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동물학대 사건들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 판결인데,



이 부분에 관해 정이수 변호사님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정이수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게 1991년에요. 단순히 동물보호법 제정 시기만을 두고 영국과 비교해보면 약 170년이 늦죠.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05년까지는 개정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 법이 생겼을 당시 처벌 조항도 하나밖에 없었고요. 급격하게 개정이 이뤄진 건 20대 국회 출범 이후, 총 아홉 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최근 의미 있었던 개정은, 동물권에서 '동물의 신체적정서적 고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됐어요.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어요. 다만 우리 법이 독일 법을 따르고 있었어요. 독일은 이미 1990년대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어요. 따라서 동물에 대한 우호를 폭넓게 할 수 있죠. 한데 우리 법은 아직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권위를 주장하는 게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대당한 동물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송방망이 처벌 판결이 나는 것도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재물 손괴죄로 처벌해야만 하는 실정이에요. 우리의 법은 독일 법계



를 따르고 있는데, 동물보호법도 독일의 법체계를 가져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유희 반려동물을 위한 신용카드가 등장할 정도로 관련 시장의 확대도 이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르고,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보험 등의 정책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천명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로 체계를 잘 갖췄는데, 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세월과 엄청난 인력이 동원됐고, 그로 인해 형성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간이 다니는 일반 병원처럼 보험수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이 정해지는 것처럼 정해지는 게 현재 동물 진료의 상황이에요.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월세가 싼 곳에 있는 동물병원이면 진료비가 쌀 수 있고, 월세가 비싼 곳에 자리한 동물병원이면 진료비가 비쌀 수 있어요. 아직 동물병원 진료비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정도로 수의사들이 정리해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동물병원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계적으로 동물 질병에 대한 진료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없어요. 동물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동물을 사람처럼 각각의 존재 개체로 간주해야 하고, 법적인 등록도 모두 해야 하며, 한 동물에게 어떤 진료 기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학계가 농림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유도 '나라에서 재원을 마련해주면 학계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동물보험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제안하는데, 농림부 측은 오히려 양배춧값, 고깃값은 각 영역에서 쉽게 정하는데, 동물권에서는 진료비를 왜 못 정하느냐라고 말해요. 농림부 자체가 동물 진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물론, 사람들을 속이는 악랄하고 비윤리적인 수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수의사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해요. 한 가지 대안이라면 저는 동물세를 내는 것에 찬성해요. 세금을 모아 제도적으로 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을 국가가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동물세를 낼 의향이 있어요. 동물을 반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가, 또한 국가에서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인가가 관련인데,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에요. 세계적으로 동물보험 체계를 구축한

나라는 없고, 사보험이 정말 사람들에게 득을 줄지 통계가 명확치 않아요. 한편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물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트라우마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정유희 마지막으로 동자연의 다양한 활동 중 아쉬웠던 점이 있거나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배다해 이슈 선점과 노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으로 개 식용 문제의 경우 수요가 현격히 줄기도 했고, 많은 부분 인식 개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 캠페인보다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강력한 법 제정과 개정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이수 동자연에 바란다고보다는 법률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한데, 아쉬운 점은 활동 사례 축적이나 동물권 관련 연구가 연속성 있게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축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현재 법률지원센터 출범 이후 진행해온 판례는 축적해오고 있는데, 판례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들, 제보 사건들의 데이터가 연속성 있게 관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활동가분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담당 활동가가 이직 후 후임자가 전임자의 일을 이어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황윤 인간과 함께 기후위기 재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동물들이에요.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단체에만 미룰 일이 아니에요. 해서 동자연도 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행동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주 1회 채식 운동을 많은 곳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보다 적극적인 채식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구체적 수치로 말씀드리면, 2006년 유엔(UN)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 중 전 세계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한 수치가 13.5%이고,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18%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채식 운동은 지

금의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더는 유효하지 않은 방향 설정이에요. 물론,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한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는 여전히 주 1회 채식 운동이 유효하지만, 개인은 달라요.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자연이 시민들을 상대로 채식 관련 캠페인을 할 때 주 1회 채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채식을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밀집 사육은 인수공통 감염병과 팬데믹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 2009년의 신종인플루엔자(돼지독감)처럼 언제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해 인간에게 전이될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도 야생동물을 착취한 대가로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자연에서 이에 관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공장식 축산 규모 축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식물성 대체 육류 개발과 채식산업 지원으로 돌리는 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자연이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힘을 보탤면 좋겠어요.

천명선 국가에서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동자연과 카라 두 단체가 참여했잖아요. 실제로 국가 공무원들이 동물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없을 때 두 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장단점이 발생했는데, 장점이라면 현장에서의 민원이나 시급한 동물권 문제는 빨리 처리되고 해결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동물복지를 위한 큰 그림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국가가 여전히 동물보호단체에 의존하는 형국이에요. 따라서 동자연을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지속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직접 현장에서 동물과 맞닿아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활동가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과 더 나아가 활동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동물보호단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고 학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관련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큰데, 아무튼 앞으로는 협공 체제로 동물복지와 정책 마련을 위한 예산 책정 이외에 활동가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길 기대하고 있어요.

좌담 진행 및 정리 MAYDAY GRAPHIC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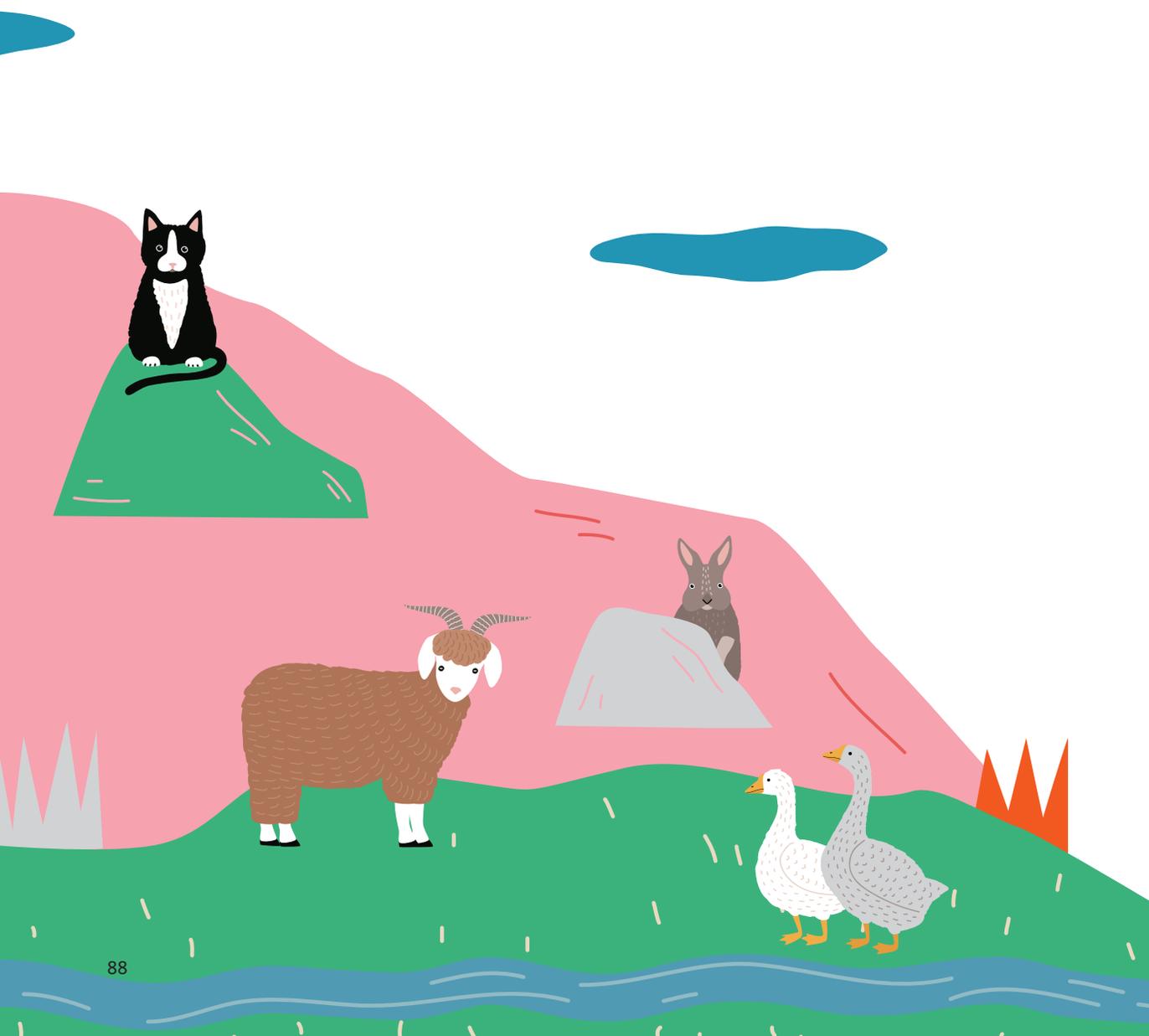
촬영 김영민,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을 부탁해!

목표를 공유하는 이웃 단체로서, 혹은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관 기관으로서 다양한 단체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동물자유연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혹은 ‘이전에는 부족했지만 앞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업해주세요!



From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동물보호를 위한 모든 영역에서 동물운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 동물자유연대가 보다 더 수행했으면 하는 사회적 역할은 ‘협력’입니다. 동물보호 활동은 크게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나 반려동물 분야는 동물자유연대와 같은 동물보호단체의 역할 덕분에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생동물과 같은 다른 영역의 활동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단체가 모든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란 걸 잘 압니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은 많고 제한된 자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힘든 상황의 속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항상 소외되는 영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판단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협력은 부족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제법 생기고 있고, 특정 사안에 힘을 쓰고 있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동안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동물자유연대의 협력으로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업하는 동물자유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사육곰을 구조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생추어를 만들고자 결성된 단체입니다. 또한, 갇혀 사는 야생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동물권 활동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From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캣케어테이커(캣맘), 대학이나 지역의 소규모 동물구조 활동가 등 이곳저곳에서 풀뿌리 동물권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동물보호단체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풀뿌리 동물권 활동은, 동물들을 위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동물권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인력 부족, 외로움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법적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런 풀뿌리 동물권 활동가들의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지금도 동물권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조금 덜 어려울 수 있도록 연대해 외로움에 맞설 수 있도록 풀뿌리 동물권 활동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세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도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풀뿌리 동물권 활동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2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물권 옹호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동물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사건 지원, 동물 관련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삶을 위해 행동하는 이웃이 되어 주세요!



From 환경운동연합

인간의 간섭으로 파괴되는 환경이 결국 동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동물은 자연 속 본성의 삶에서 밀려나 인간을 위해 설계한 환경에서 강제적으로 살아갑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앞으로 동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환경을 지켜주는 사회적 역할에 참여하길 기대해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크리스 조던의 스피드 작품 <알바트로스>처럼 동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동물자유연대 회원분들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돌보는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는 것도 동물자유연대의 역할 중 하나로 기대해봅니다.

▶ 1993년 사람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결사로 시작된 환경운동연합은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 가능한 생태민주사회 건설, 자유로운 참여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동물복지 정책에 새로운 표준을 설정해주세요



From Open Wing Alliance

Open Wing Alliance의 귀중한 회원단체로서 동물자유연대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동물복지 정책에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기업들이 케이지프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배터리 케이지를 종식하기 위한 전 세계적 공동 대응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Open Wing Alliance는 동물자유연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란계 사육 환경에서 케이지 사용을 종식하고 한국의 산란계에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동물자유연대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Open Wing Alliance는 전 세계적으로 산란계 학대를 종식하기 위해 활동하는 8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글로벌 연합체입니다.

장단기적인 솔루션 제시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주세요



From The Wild Animal Sanctuary

한국은 동물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받길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놀라운 나라입니다. The Wild Animal Sanctuary(TWAS)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물자유연대와 같은 훌륭한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수를 감안할 때 동물자유연대는 각 문제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솔루션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긴급하고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도 동물을 성공적으로 구조하는 것과 같은 단기 솔루션을 통해 동물자유연대와 TWAS는 일반 대중에게 장기적 해결책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동물자유연대와 TWAS는 동물운동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고 더 큰 대중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TWAS는 동물자유연대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내에 국가 차원의 생추어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TWAS는 1980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비영리 야생동물보호 생추어리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스페인 등에서 동물원, 서커스에 이용되었던 동물들과 전시시설에서 과잉 번식으로 인해 안락사에 직면한 동물들에게 영구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시작되는 큰 변화

20년을 이어온 동물을 위한 활동, 그 주체는 누구도 아닌 회원과 시민으로서의 당신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동물운동, 미래의 변화 역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물자유연대가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회원께 소중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양은경

공장식 축산, 강아지 공장, 동물실험의 지옥 등 참혹한 학대에 고통받는 동물들의 방주가 되어 더 많이 더 널리 구호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태

동물보호 및 생명 감수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이 결국 다른 제도와 인식, 문화의 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채널, 인물, 미디어 매체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형직

동물을 보호하는 일이 누군가 특별하게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듯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세요.

김윤주

18살 고등학생인데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비건식을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이기에 점심, 저녁은 학교에서 먹어 비건식을 먹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건이 무엇인지, 채식의 다양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 우리나라에서 비건이 되기는 아직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 소비와 비건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미연

얼마 전 일반적으로 흔히 먹는 달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또 그런 달걀을 얻는 과정들에 얼마나 큰 학대가 개입되는지를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숨어 있는 동물 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더 활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정

다른 동물보호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힘을 키워나가고 목소리를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고 뭉쳐야 힘이 생기고, 법과 제도를 바꾼다든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은지

외국처럼 동물 입양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양 자격을 입증하는 테스트 등)를 강화해서 아무나 입양하고 또다시 파양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인간을 위한 곳이므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는 동물원(일반 야생동물 카페 등 포함)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활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지혜

저는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캣맘입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소액이라도 정기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해 보이지만 20년 동안 힘써주셔서 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동물인식과 동물권은 처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제

반려문화의 인식 개선과 성숙에 앞장서주세요.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모든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김보영

길고양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캠페인과 지자체 주도 TNR 확대를 위해 힘써주세요. 장기적으로는 동물원의 기능이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이 머물다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곳, 생명 사랑에 대한 아동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함해리

동물자유연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을 교육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 돌이가 제주 바다로 돌아가고 곰돌이가 열악한 우리에서 그나마 행동다양화 구조물을 얻을 수 있는 건 동물자유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앞으로 20만 배 커져서 40주년에는 더 많은 동물이 존중받으며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은

도로 위 다친 동물들, 버려진 동물들을 볼 때면 매번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신고해야 하지' 많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동물에게 큰 애정이 있는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어떤 과정을 밟아 구조해야 하는지,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등 동물자유연대가 앞장서서 여러 정보나 동물인식 개선 방법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철운

동물자유연대 20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세상
동물자유연대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